

미용전공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최영재*, 이인희, 김윤정

¹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²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³명지전문대학 뷰티아트과

Effects of Career Maturity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on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Young-jae Choi¹*, In-hee Lee², Yun-Jung Kim³

¹Dept. of Beauty Arts, Graduate School, Seokyeong University

²Dept. of Beauty Arts, Seokyeong University

³Dept. of Beauty Art, Myoungji College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용전공대학생의 학년별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차이를 파악하고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미용전공대학생의 진로 상담 및 교육 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침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지역의 미용관련학과 336명이다. 진로성숙도는 고학년일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가 높을수록 합리적 진로의사결정유형에, 진로성숙도가 낮을수록 의존적 진로의사결정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보였다. 고학년일수록 진로 결정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논리적으로 결정하는 합리적인 유형을 나타냈고, 저학년일수록 자신의 현재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정서적 자각을 통해 결정 내리는 직관적 유형과 주변인이나 환경의 영향에 따라 결정 내리는 의존적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유형은 학년별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두 변인 간의 중요성이 밝혀진 만큼 저학년부터 진로성숙도를 높이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학년별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진로지도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beauty majors' career maturity and career decision-making depending on the grade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maturity with the career decision-making to present basic data for guidelines that would help any relevant field with their career consultations and education targeting thos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at college. A total of 336 beauty majors in the metropolitan area were selected as the research subjects.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grade, the greater the career maturity. The students who had a higher level of career maturity tended to be included in the reasonable career decision-making category while those students with a lower level of career maturity were determined to conduct dependent decision-making. In terms of the career decision, the students in the higher grades were reasonable enough to make decisions logically because they collect various information through systematic stages but when it comes to the students in the lower grades, they were divided into the intuitive type that would reach a decision through emotional self-recognition depending on how one feels at this moment or what situation one is going through as well as the dependent type that would let people or environments influence one's decision-making. The grades of the students tended to cause differences in the career maturity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and the significance between the two variables was proven. If the relevant fields carry out systematic grade-focused programs and career guidance not only to improve the career maturity of even the lower graders but also to encourage the students to make reasonable decisions, such programs and career guidance will be a help when the students try to determine a career.

Key Words : Cosmetology majors,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Corresponding Author : Young-jae Choi(Seokyeong Univ.)

Tel: +82-10-9382-8464 email: sensation01@naver.com

Received October 27, 2014

Revised (1st December 1, 2014, 2nd December 10, 2014)

Accepted December 11, 201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한국은 IMF 이후 지속적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대학생의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이에 대학생에게 진로와 취업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실질적인 경제적 차원 및 그 진로를 통한 자아실현의 차원까지 삶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변화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판단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고민은 기나긴 교육과정을 마치고, 학교에서 사회로 진입하는 변화의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1].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서적이거나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찾을 수 있으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를 준비하고 성숙시키는 경험을 쌓기에는 입시위주 교육을 받아온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학생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진로의사결정에 대해 성숙하지 못한 태도로 임함으로써 만족스럽지 못한 진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2].

대학에서 진로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생 개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직무별, 직업별 맞춤교육을 제공하고[3], 진로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 대학 내 취업정보센터와 학생생활연구소 등을 갖추고 진로지도를 하고 있으나 실제 취업정보제공이나 단순한 심리검사의 실시와 해석이 대부분이며 시기도 취업에 임박하여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직업의 이해 및 탐색, 진로계획 및 관리능력 함양을 위한 지도가 저학년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4].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진로지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진로성숙의 정도 즉, 진로성숙도를 알 필요가 있다.[5].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은 1955년 Super가 직업성숙(Vocational Maturity)을 소개한 이후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개념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진로성숙이란 개념이 보다 포괄적인 상위개념으로 정착

되기에 이르렀다[2]

김충기[6]는 개인의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통해 궁극적으로 직업적성에 부합되는 행동과 판단력을 낳는 과정을 직업발달이라고 보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결과를 진로성숙도라고 정의하였으며 정희영[7]은 진로성숙도를 일과 자아 및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한 수준 또는 발달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다른 학자들은 적절한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개념화하였는데, 이는 진로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각하는 것과 개인의 선택이 현실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의 정도를 포함한다[8].

Crites이 개발한 CMI(Career Maturity Inventory) 도구에 의한 초기 연구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성숙도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으며[9] 박완성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되었다[10]. 그 외 나이와 진로성숙도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11], 진로성숙도가 진로의사결정유형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12].

또한 진로의사결정(career decision-making)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접근하고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전략으로 의사결정과제를 지각하고 그에 반응하는 특징적 유형 또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며 진로의사결정은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13].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며 그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실적이며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유형이다.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은 합리적 유형처럼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상황에 대한 정보를 합리적 유형처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수집하지 않고 정서적 자각을 통해 비교적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대한 결정을 정확하기 설명하지 못하는 유형이다.

의존적 의사결정유형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거부하며 결정에 대해 외부적인 요인에 전가하는 경향이 크고, 사회적인 인식이 중요하며 주변인들의 도움 또는 영향을 많이 받아 결정을 내리는 유형이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분류와 척도로 측정되고 있으나, 대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진로를 발견하고 준비해 나가기 위한 진로의식성숙은 매우 복잡하고 힘든 일이므로 적절한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능력을 증진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4].

진로성숙이 개인이 자신에 대해 정확히 평가하고 현실의 고려 등을 통해 현명하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준비성 정도를 측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의존적 혹은 직관적 의사결정유형의 사람들보다 합리적 의사결정유형의 사람들이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5]. 또한 여러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유형 중 합리적 유형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6]. 미래에 대한 자신의 진로준비는 직업을 선택할 즈음에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적 특성이나 정의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서 성숙되어야 한다[14].

미용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타전공보다는 대부분 자신의 적성과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고 있고[17], 미용관련학과와 독창적 특성 때문에 해당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재능을 갖고 있거나 진로를 확고히 정하여 진학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18]

미용교과와 특성과 성격유형의 특성상 발달하고 표현력이 우수하며, 정보를 통해 알기보다는 본인의 오감을 통해 인식하여 직접 교과목에 대해 경험할 줄 알고 자율적이고 여러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성격유형이 많으므로 진로의사결정 시 적절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성숙도, 소비문화, 진로의사결정유형 등에 관련한 선행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미용전공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대한 부분은 연구가 미비하다. 또한 진로에 대한 상담은 일부 취업희망학생을 위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학년별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미용전공대학생의 진로 상담 및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1.2 연구문제

1. 미용전공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다.
2. 미용전공대학생의 학년별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3. 미용전공대학생의 학년별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차

이를 분석한다.

4. 미용전공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14년 04월 07일부터 06월 05일까지 미용관련학과가 있는 8개 대학의 미용전공대학생에게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이 미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14부를 제외한 33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설문조사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2.2 연구도구

2.2.1 진로성숙도

Crites[19]이 개발한 CMI(Career Maturity Inventory)이 진로발달측정도구를 기본으로 한 송지은[20], 정희영[7]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를 연구자의 목적에 적합하게 일부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진로성숙도는 진로성숙도 검사 중 태도척도에 의해서 측정되는 진로 선택 시 개인의 결정성, 목적성, 독립성, 확산성, 준비성 등의 태도적인 측면을 말한다. 각 하위요인에는 목적성 5문항, 결정성 4문항, 준비성 5문항, 확산성 4문항, 독립성 4문항으로 총 22문항이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송지은[18]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42\sim.858$, 정희영[7]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7\sim.87$ 이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37\sim.988$ 로 나타났다.

2.2.2 진로의사결정유형

Harren[21]이 개발한 진로의사결정유형 검사지(ACDM: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를 고태재[22]가 번안한 검사지로 김현정[23], 이주라[24]의 설문지를 토대로 연구자의 목적에 적합하게 일부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연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의 하위요인에 각 6

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현정[21]의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8 \sim .787$ 이고 이루라[22]의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21 \sim .857$ 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3 \sim .945$ 로 나타났다.

2.3 자료처리 및 분석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데이터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클리닝 과정(data cleaning)을 거쳐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전공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년에 따라서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 후,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간의 영향력 분석을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미용전공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은 남자가 27명(8.0%), 여자가 309명(92.0%)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 4학년이 99명(29.5%)으로 가장 높았으며, 세부전공은 피부가 178명(53.0%), 메이크업이 79명(23.5%), 헤어가 69명(20.5%), 네일이 10명(3.0%)순으로 나타났다.

3.2 미용전공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상관관계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성숙도 요인들 간의 전반적인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하위요인 중 합리적 유형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확신성($r=0.267, p<.01$), 독립성($r=0.112, p<.05$), 준비성($r=0.438, p<.01$)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하위요인 중 직관적 유형은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결정성($r=0.144, p<.01$), 확신성($r=0.204, p<.01$), 독립성($r=0.311, p<.01$),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준비성($r=-0.135, p<.05$), 목적성($r=-0.169, p<.01$)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하위요인 중 의존적 유형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r=-0.328, p<.01$)과 확신성($r=-0.202, p<.01$), 준비성($r=-0.179, p<.01$)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3 미용전공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진로성숙도의 모든 요인이 4학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신성을 제외한 결정성($F=3.612, p<.05$), 목적성($F=4.440, p<.05$), 독립성($F=6.446, p<.001$), 준비성($F=5.790, p<.001$)의 요인이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object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27	8.0
	Female	309	92.0
Grade	1st grade	87	25.9
	2nd grade	70	20.8
	3rd grade	80	23.8
	4th grade	99	29.5
Major	Hair	69	20.5
	Skin	178	53.0
	Make up	79	23.5
	Nail	10	3.0
Total		336	100.0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aturity inventory and career decision

		Career decision		
		Reasonable	Intuitive	Dependent
Maturity Inventory	Determinacy	.025	.144**	-.328**
	Finality	.021	-.169**	.111*
	Certainty	.267**	.204**	-.202**
	Independency	.112*	.311**	-.032
	Readiness	.438**	-.135*	-.179**

* p<.05, **p<.01

[Table 3] One way variance analysis of maturity inventory according to the grade

Maturity Inventory	Grade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4th grade	F
		M±SD	M±SD	M±SD	M±SD	
Determinacy		2.45±0.63 ^b	2.50±0.67 ^b	2.64±0.64 ^a	2.74±0.88 ^a	3.612*
Finality		2.68±0.72 ^b	2.68±0.70 ^b	2.69±0.66 ^b	2.78±0.69 ^b	4.440*
Certainty		3.12±0.48	3.17±0.61	3.20±0.49	3.25±0.49	0.958
Independency		3.10±0.31 ^a	3.16±0.42 ^a	3.26±0.52 ^b	3.36±0.41 ^b	6.446***
Readiness		3.16±0.43 ^a	3.25±0.36 ^b	3.27±0.54 ^b	3.31±0.34 ^b	5.790***

* p<.05, **p<.0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the level of p≤.05, significance validation a<b<c

[Table 4] One way variance analysis of career decision according to the grade

Career decision	Grade	1st grade	2nd grade	3rd grade	4th grade	F
		M±SD	M±SD	M±SD	M±SD	
Reasonable		2.95±0.57 ^b	2.96±0.43 ^b	3.03±0.64 ^a	3.03±0.48 ^a	5.521**
Intuitive		3.08±0.30 ^a	3.05±0.35 ^a	3.04±0.58 ^b	2.98±0.57 ^b	4.464*
Dependent		2.52±0.58 ^b	2.31±0.64 ^b	2.30±0.58 ^a	2.15±0.61 ^a	5.120**

* p<.05, **p<.0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the level of p≤.05, significance validation a<b<c

[Table 5] Effects of Career Maturity of Beauty Majors in Relation to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decision	Maturity inventory	B	β	t	R Square	Adjusted R Square	F
Reasonable	(constant)	1.118		3.734			
	Determinacy	.019	.026	.511*			
	Finality	.001	.001	.023*			
	Certainty	.128	.123	2.194*	.196	.184	16.117***
	Independency	-.075	-.060	-1.095*			
	Readiness	.510	.397	7.144			
Intuitive	(constant)	1.762		6.514			
	Determinacy	.113	.173	3.297**			
	Finality	-.101	-.145	-2.721**			
	Certainty	.102	.111	1.926*	.146	.133	11.274***
	Independency	.270	.246	4.384***			
	Readiness	.017	.016	.271			
Dependent	(constant)	2.392		6.857			
	Determinacy	.240	-.283	-5.402***			
	Finality	.058	.065	1.221*			
	Certainty	-.168	-.142	-2.466*	.147	.134	11.394***
	Independency	.116	-.082	-1.458*			
	Readiness	-.214	-.148	-2.577**			

* p<.05, **p<.01, ***p<.001

3.4 미용전공대학생의 학년별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차이

학년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사후검증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합리적 유형은 4학년이 가장 높은 성향을 보였으며(3.30 ± 0.48)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5.521, p<.05$) 1학년이 직관적(3.08 ± 0.30)에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F=4.464, p<.05$) 의존적 유형에서도 1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2.52 ± 0.58)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120, p<.01$).

3.5 미용전공대학생의 진로성숙도가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도는 진로의사결정유형의 모든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Table 5와 같이 분석되었다. 합리적 유형은 진로성숙도의 요인 중 결정성, 목적성, 확신성은 정(+)의 영향을 나타냈고 독립성은 부(-)의 영향을 보였다. 그 중 확신성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으며($\beta=.123, p<.05$), 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가는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직관적 유형에는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은 정(+)의 영향을 보였고 목적성은 부(-)의 영향을 보였다. 그 중 독립성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beta=.246, p<.001$).

의존적 유형에는 목적성이 정(+)의 영향을 결정성, 확신성, 독립성, 준비성은 부(-)의 영향을 보였다. 그 중 결정성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beta=.283, p<.001$). 이는 진로준비에 있어 확신이 없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수록 진로를 결정 시 스스로 결정내리지 못하고 주변의 영향으로 결정하게 되는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미용전공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유형을 파악하고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 및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차이를 분석하여 이들의 관련성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용전공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측정변수들 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냈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하위요인 중 합리적 유형은 진로성숙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진로를 결정하는 것임을 나타냈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하위요인 중 직관적 유형에서는 진로에 대한 확신이나 결정성은 높지만, 준비성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의사결정유형의 하위요인 중 의존적 유형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 확신성, 준비성 모두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의사결정 시 주변의 의존성이 강한 성향은 진로에 대한 결정력과 확신이 떨어져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최은주·김영란[25]의 선행연구에서도 진로의사결정유형 중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으로 결정 할수록 진로성숙도의 수준이 높고 의존적 유형으로 결정 할수록 진로성숙도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학년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고학년 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학년일수록 진로선택과 취업에 대해 가까운 시기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추구하는 진로에 대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진로 선택에 필요한 전공지식 또는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탐색을 통해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김영화·김경은·최정현[26]의 선행연구에서도 학년별 차이가 있었으나 1,4 학년에서 결정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형균[27]과 김남홍[28]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본 연구는 일치하였다.

학년에 따른 진로의사결정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고학년일수록 진로결정 시 합리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이는 고학년일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며 결정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며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논리적으로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학년일수록 자신의 현재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정서적 자각을 통해 결정 내리거나 친구, 선배, 부모님, 교수님 등의 주변인이나 환경의 영향에 따라 결정 내리는 성향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고향재[22], 전경애[29], 박현창[30]의 선행연구에서 같은 결과를 보여 타 전공과 미용전공 학생도 크게 다르지 않은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진로성숙도가 진로의사결정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합리적인 유형은 확신성에서 가장 영향력을 보였으며 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가는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직관적 유형은 독립성에 가장 영향력을 보였으며 의존적 유형은 결정성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준비에 있어 확신이 없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수록 진로를 결정하는 점에서도 스스로 결정내리지 못하고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영향으로 결정하게 되는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임소연·진정화[18]의 미용학과 학생의 성격유형(MBTI)과 진로선택에 관한 연구와 홍보경[31]의 미용학과 학생들의 진로태도와 진로선택성향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용학과 학생의 경우 직관적(N)이 감각형(S)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고형(T)과 감정형(F) 중 감정형(F)이 높게 나타났고, 판단형(J)이 인식형(P)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성향으로 보아 미용학과 학생의 성격이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교적, 정열적, 활동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오감에 의존하고, 실제의 경험을 중시하며 현재에 초점을 맞춰 일처리를 하는 성향을 가졌다. 또한 논리적·분석적이기 보다는 감정에 의해 분명한 목적 및 뚜렷한 기준과 자기의사를 갖고 의지적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미용학과 학생이 가진 직관적이거나 의존적인 성향만으로 진로를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 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로성숙도를 높여주는 진로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혜주[32]와 심은숙[33]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진로성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고, 교수의 실무경력과 전문성, 강의력 등 질적 교육서비스가 미용전공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진로결정에 지표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34]. 그러므로 진로성숙도를 높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매개인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변인의 조사와 함께 진로성숙도,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를 연구한다면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에 대

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미용전공대학생의 진로성숙도는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며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와 진로의사결정 또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상담 시 취업시기에 임박하여 단순한 검사로만 이루어지기 보다는 이들 간의 중요성이 밝혀진 만큼 저학년부터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용전공대학생의 각 세부 전공 및 각 학년별 진로성숙도를 높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공 및 학년별 성격·특징을 파악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체계적인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Reference

- [1] M. N. Jung,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tyle and Occupational Engagement on Career Attitude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11.
- [2] H. S. Jeong, "The Career Decision Making Styles of the Students in a Consigned Vocational Course in General High Schools and the Effect of Their Career Attitude Maturity on Their Major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2013.
- [3] J. S. Go, C. Y. Jyung,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Criteria for Career Services in Universitie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38. No. 4 pp.141-160, 2006.
- [4] Y. S. Lee, S. O. Dong, Y. A. Jung, C. W. Kang, K. K. Kim, "Background of Successful Employment after Gradu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2, No.3, pp. 1523-1533, 2010.
- [5] H. R. Lee, S. H. Kwon, "A Study on Some Variables Affecting the Career Maturity of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ling, Vol. 1, No.1, pp. 125-137. 2000.
- [6] C. K. Kim, "A Study on the Career Planning Applied Concepts of Career Development Approach",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Vol. - No. 10, pp. 135-182, 1999.

- [7] H. Y. Jeong,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Values an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Kyungsoo University, 2010.
- [8] Levinson, E. M., Ohler, D. L., Caswell, S., & Kiewra, K. "Six approaches to the assessment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76, pp. 475-482, 1998.
DOI: <http://dx.doi.org/10.1002/j.1556-6676.1998.tb02707.x>
- [9] Herr, E. L., & Enderlein, T. E. "Vocational maturity: The effects of school, grade, curriculum and sex 1",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8, pp. 227-238, 1976.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76\)90023-3](http://dx.doi.org/10.1016/0001-8791(76)90023-3)
- [10] W. S. Park. "The Longitudinal Study of Factors effect on Career Maturity for Secondary Students",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Vol. 20, No.4 pp. 87-101, 2007.
- [11] King, S., "Sex differences in a causal model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68, pp. 208-215. 1989.
DOI: <http://dx.doi.org/10.1002/j.1556-6676.1989.tb01359.x>
- [12] M. J. Park, "The Influence of Major-Interest Correspondence on Course Maturity and Satisfaction with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2008.
- [13] Harren, V. A.,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4, pp. 119-133, 1979.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79\)90065-4](http://dx.doi.org/10.1016/0001-8791(79)90065-4)
- [14] K. B. Hwan, B. S. Kim, C. Y. Jeong, " Career consultation in School", Hakjisa, 2000.
- [15] S. H. Yoo, S. H. Kang, K. M. Yun., "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nd Levels and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4, No.36, pp. 1111-1123, 2004.
- [16] S. K. Nam, J. Y. Lee, H.R. Park, D. H. Kim, M. K. Lee, S. M. Lee., "The Role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nd Career Maturity",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 14, No. 1, pp. 205-224, 2008.
- [17] M. N. Park, "Effect of the self-concept of beauty design college majors to creativity and career awareness", Unpublished masters'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10.
- [18] S. Y. Lim, C. H. Chin., "A Study on the Realationishi between MBIT of Beautytherapy Department Stuentns at their Career Selection",
- [19] Crites, J. O., "Vocational Psychology: The study of vocational behavior and development", New York : Mcgraw-Hill.. 1969.
- [20] J. E. Song, "Effect Analysis of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Job Placement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Youth Science Th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2014.
- [21] Harren, V. A., "Assess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ACDM) :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84
- [22] H. J. Koh,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an college students's decision making style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3.
- [23] H. J. Kim, "A study on analysis of the career Choosing Types and the Career Decision Factors of Dance Major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2007.
- [24] R. R.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interest congruence and career choice pattern of undergraduate danc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1.
- [25] E. J. Choi, Y. R.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Beauty and Art. Vol. 13, No. 3, pp. 45-58, 2012.
- [26] Y. H. Kim, K. E. Kim, J.H. Choi.,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and career maturity amongst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2, No.3. pp. 1223-1233, 2011.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1.12.3.1223>
- [27] H. G. Kim, " The Concern Analysis according to Gender and School Year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Maturity Inventor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areer & Vocation Counselling The international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JeonJu University. 2002.
- [28] N. H. Kim, "The Concern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Maturity Inventor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local development Han Nam University. 2001.
- [29] K. A. Che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s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Level of College Students ",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 [30] H. C. Park., "The Correlation Analysis Among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 Making Patterns,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Graduate School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4.
- [31] B. K. Hong, "The Career Attitude and Career Choice of Cosmetology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6, No.2, pp. 151-164, 2012.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2.6.2.151>
- [32] H. J. Kom,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Flow Experience on Career Decision 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Major i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007.
- [33] E. S. Shim, " Gender, Class, and Major differences in Career Maturity and Student Satisfaction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chool Counselli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3.
- [34] D. S. Tae., "The Effect of Professor Images on the Satisfaction of Major and the Course Decis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ed in Beauty Treatment", Journal of Investigative Cosmetology Vol. 9, No. 2, pp.143-148, 2013.
DOI: <http://dx.doi.org/10.15810/jic.2013.9.2.009>

최 영 재(Young-Jae Choi)

[정회원]



- 2008년 2월 :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미용예술학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외래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서경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박사과정 중

<관심분야>

대학진로교육, 미용전공, 직무분석

이 인 희(In-Hee Lee)

[정회원]



- 2010년 2월 :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과 (미용예술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교수

<관심분야>

사회과학, 교육, 피부, 세포재생

김 윤 정(Yun-Jung Kim)

[정회원]



- 2013년 2월 : 전남대학교 응용생물공학부 농화학과 (박사과정수료)
- 2008년 3월 ~ 현재 : 명지전문대 뷰티아트과 조교수

<관심분야>

직업교육프로그램